



Sol to Bio  
SEOBONG BioBestech Co.,Ltd.

# 바이오타이트 "V"

천연생물물질 항생제 대체제  
(세계 24개국 발명특허품)



### 회사연혁

- 1992.04 (주)서봉바이오베스텍 법인 설립
- 2001.09 9월 17일 KBS 9시 뉴스 보도 : 항생제 대체제 개발(과학분야)
- 2002.07 세계 최고의 동물 국제 학회 「ADSA-ASAS Joint Meeting」에서 바이오타이트 "V"의 항생제 대체제 효과" 당사 연구 논문 발표 (캐나다, 퀘벡, 2002년 7월21일~7월 25일)
- 2002.07 항생제 대체제 발명특허 획득  
발명의 명칭 "항생제 대체를 위한 가축 사료 조성물" 특허제 0343367호
- 2002.12 세계 23개국 특허 등록 출원: 항생제 대체를 위한 가축사료 조성물
- 2003.11 유럽 스페인의 유력 동물약품회사에 "바이오타이트 V 플러스" 초도 물량 수출
- 2003.12 "바이오타이트 V 플러스" 일본 수출
- 2005.11 「제 8회 농업과학기술상」농림부 장관상 수상
- 2005.07 중국 특허 등록
- 2004.10 '항암활성성분을 갖는 게르마늄 복합광물과 이를 이용한 항암제' 특허 획득(특허 제 0454200호)
- 2006.03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00 획득
- 2006.03 미국 특허 등록

▲ 정연권 대표

항생제는 가축의 성장 촉진효과와 더불어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농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가축에서의 항생제 검출빈도가 일본의 8배나 된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최근 들어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정부에서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다. (주)서봉바이오베스텍(대표:정연권)이 세계 최고의 항생제 대체제라 주장하는 바이오타이트 V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걸까? 궁금증을 안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주)서봉바이오베스텍을 찾았다.

## 차별화 전략은 성공지름길

삼성 애니콜, LG 싸이언 처럼 대기업들은 저마다 유명한 몇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서봉바이오베스텍도 마찬가지로 솔투바이오라는 브랜드가 있다.

정연권 사장은 “대부분의 첨가제 업체들은 브랜드 전략을 쓰지 않는데 우리회사는 2002년도에 솔투바이오라는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서봉바이오베스텍 하면 솔투바이오를 떠올리도록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바이오타이트V는 솔투바이오라는 브랜드를 가진 하나의 제품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차별화·특성화 하기위해 브랜드 전략을 쓰는 것이죠.”

정연권 사장은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생제 대체제라는 제품의 특성상 항생제를 판매하는 타 업체로부터 견제를 받았다고 말하며 초기 제품 개발과정과 홍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다른 회사와 차별화 되는 마케팅을 생각하던 중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전략으로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농가를 직접



▲ 솔투바이오 제품카달로그

대면하고 제품홍보와 컨설팅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 사장은 무엇보다 농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인력을 줄이면 그만큼 회사의 경영효율은 높아지겠지만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나 농가에 대한 서비스측면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의 마케팅 방법이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Worldwide Vision

브랜드 전략화 외에도 타 첨가제 회사와 차별화 되는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유럽등을 포함한 세계 23개국에서 특

허를 획득한 점이다. 현재 대만과 스페인, 중국, 일본에 바이오타이트 V를 수출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특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특허를 받고 수출까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연권 사장은 프랑스에서만 20개 회사에서 실험을 했다고 말하며 유럽은 자국의 기술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후, 서봉바이오베스텍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와 수출계약체결을 진행 중인 (주)서봉바이오베스텍은 전 세계로 솔투바이오를 수출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연권 사장은 현재 북한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에서 보내온 서신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북한 평양에 유기로 농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 동물약품이 부족해



▲ 이창기 이사님



▲ 치열한 경쟁만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말하는 정연권 사장.

심각한 돼지폐사가 있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을 했고 북한 측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답신 전문에는 “..... 항생제 대체용 첨가제는 현재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돼지 폐사율이 현저히 없어졌음을 알립니다.” 라고 써여 있었다. 정연권 사장은 현저히 없어졌다는 문구를 재차 강조하며 무척 뿌듯해 했다.

답신을 받은 후 작년 12월에 북측에 다시 지원을 해 주었고 올해 5월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이달 22일날 개성공단에서 2차 수출을 앞두고 북측과 선적날짜와 도착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품질에 대한 강한 자부심

(주)서봉바이오베스텍 정연권 사장실에 들어



▲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 후 직원들과 함께.

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 많은 표창장이었다. 2005년에는 천연항생제 대체제인 바이오타이트 V로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최근 5월에는 국내부존자원을 이용한 수입대체효과와 해외 특허 획득 및 이를 통한 수출 활성화 등의 공적이 인정되어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했다.

바이오타이트 V는 게르마늄, 셀레늄, 코발트, 요오드 등 수십 가지 무기미네랄이 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가축체내에서 미생물과 면역세포(T-cell) 등을 활성화 시키고 소화효율을 높여 사료효율을 향상시키며, 인·질소 함량과 암모니아 가스의 발생량이 감소됨은 물론 많은 질병과 폐사율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정연권 사장은 바이오타이트 V가 다른 회사의 항생제 대체제와 다른 점으로 100% 국내부존자원을 이용해 개발했다는 것과, 앞으로 몇 백년 동안 쓸 수 있는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주)서봉 바이오베스텍이 꾸준한 성장을 한 것에 대해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정 사장은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엄격

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우수한 제품은 정부가 자국에서 판로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미사료 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제품경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무한경쟁을 통해 기업의 내실을 키우길 바라는 서봉바이오베스텍. 앞으로 서봉바이오베스텍이 경계할 만한 탄탄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취재를 마쳤다. ㉟